

# 韓國人の 行爲模型： 基本禮節로서의 ‘점잖다’를 中心으로

金一鐵\*

## I.

사회 변동의 속도가 느리고 폐쇄적인 農業社會에서는 職場과 家庭이 未分化되어 있었고, 개인의 日常生活圈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과 인근마을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社會化와 行爲統制 메커니즘도 대부분 가족과 마을 단위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당시의 社會化의 目標는 傳統과 權威에의 順應을 통한 垂直的 同質化와 水平的 劃一化에 있었다. 가족 내에서는 親子間의 권위가 확립되어 있었고, 마을 단위에서는 어른들의 尊嚴과 權威가 엄중하였다. 이는 同族村의 경우에 더욱 엄격하였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生活의 道를 배웠다. 그러나 開放的 產業社會로 이행하면서 사회화 과정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촌의 소규모 마을 생활을清算하고 匿名性이 보장되는 대도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개인의 사회화 과정은 가족 생활의 변질과 마을共同體의 喪失로 인하여, 생활의 學習道場을 잃고 자유분방하게 그리고 異質的으로 진행되었다. 가족과 마을 공동체가 아닌, 사회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하고 새로운 기관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사회화는 과거의 理念과 行爲樣式을 학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急變하는 생활환경의 필요에 의하여 요청되는 새롭고 有用한 생활양식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화는 새로운 환경의 탄생에 따른 새로운 人間의 形成이라는 산업사회·도시사회의 역동적 성격

\*서울대학교 교수, 사회학.

\*\*본고는 1993년 11월 일본 오사카 國立民族學博物館에서 개최되었던 “사회질서를 가늠하는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열린 아시아 지역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논문의 국문판이다. 앞으로 좀더 개정하여 일본어로 출간하기로 되어 있는데, 독자들의 많은 논평을 기대한다. 그리고 출판 과정에서 원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薛東勳 조교에게 감사드린다.

(dynamism)을 잘 표출한다고 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국인의 생활양식도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가장 전형적인 행위모형으로서 “남자는 점잖아야 하고 여자는 얌전하여야 한다”는 생활의 道가 존재하였다. 산업화·도시화의 涼中에서 과거의 문화와 행동규범은 더러는 계승되고 더러는 단절되어, 새로운 類型의 人間形成이 시작되고 있다. 말하자면, 행동규범을 학습해온 과거의 生活의 道場이 質的 轉換을 하게 되었으며 생활의 道 그 자체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生活道場의 엄청난 변화에 따라 변질되고 변형되어 온 사회적 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인의 행동규범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동시에 새로운 한국인의 행동규범의 正體는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 Ⅱ.

韓國語에서 ‘점잖다’와 ‘얌전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歷史的으로 어떤 思想의 背景과 制度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와 언어 문제에 門外漢人 본인으로서는 언급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 말들이 朝鮮時代의 선비(士)思想이라는 것으로부터 매우 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성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身分制 社會에서의 주요 행동규범은 上流社會에 그 뿌리를 두었고, 일반 서민생활과 그들의 행위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비단 學者로서의 學問의 所有者뿐 아니라 그들의 生活哲學과 行爲樣式이 一般庶民들의 模範이 되는 사람들이었다. 조선시대의 선비思想과 한국인의 ‘점잖다’라는 行爲模型과는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서는 歷史的이고 言語學的 接近보다는 한층 더 現實的 측면에서 接近하여 日常生活에 있어서의 ‘점잖다’와 ‘얌전하다’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 그것의 變質이 生活環境과 生活道場의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한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점잖다’와 ‘얌전하다’의 뜻을 생각해 보자. 이것들은 學術用語가 아니라 生活用語이기 때문에 그 뜻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辭典에서 발견되는 뜻을 먼저 살펴보자.

〈표 1〉과 같이 主要 辭典에서 풀이한 ‘점잖다’와 ‘얌전하다’의 뜻을 살펴보면 좀 더 상세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간단한 것도 있지만, 그 주요 내용은 비슷하다. 이들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一常生活 言語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표 1〉 ‘점잖다’와 ‘얌전하다’의 辭典的 의미

I. 한글학회 編, 『우리말 큰사전』(어문각, 1992)

- 점잖다 : ① 몸 가짐이 묵중하고 높다  
              ② 품격이 야하지 아니하고 고상하다  
얌전하다 : ① 성품이 안온하고 말과 짓이 단정하다  
              ② 모양이 좋고 품위가 있다  
              ③ 수선스럽지 않고 맵시가 있다

II. 긍성출판사 刊, 『국어대사전』(김민수 · 고영근 · 임홍빈 · 이승재 편, 1992)

- 점잖다 : ① (몸 가짐이) 의젓하고 예절바르다  
              ② 품격이 야하지 않고 고상하다  
얌전하다 : ① (성질 태도 언행 따위가) 안온하고 침착하며 단정하다  
              ② 모양이 좋다  
              ③ (일 솜씨가) 맵시가 있다

III. 동아출판사 刊, 『국어사전』(1983)

- 점잖다 : ① 품격이 높고 믿음직하다  
              ② 의젓하다  
              ③ 신수가 훌륭하다  
              ④ 몸 가짐이 무게와 품이 있다  
              ⑤ 됨됨이가 야하지 않고 고상하다  
얌전하다 : ① 성질이 유순하고 침착하다  
              ② 사람이나 물건이 음전하고 쓸모가 있다

IV. 현문사 刊, 『한국어대사전』(1980)

- 점잖다 : ① 언행 등의 몸 가짐이 야하지 않고 무게가 있다  
              ② 됨됨이나 생김새가 품위 있고 고상하다  
              ③ 의젓하다  
              ④ 신수가 훌륭하다  
얌전하다 : ① 성질이 차분하고 고우며 언행이 단정하다  
              ② 사람이나 물건의 모양이 좋고 쓸모가 있다  
              ③ 수선스럽지 않고 맵시가 있다

V. 북조선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編, 『조선말 대사전』(1992)

- 점잖다 : ① (몸 가짐이 가볍거나 까불지 않고) 레절있게 듬직하고 의젓하다  
              ② (내용이나 격식 또는 생김새 등이) 속되지 않고 틀스럽다  
              ③ (생김새나 차림이) 품격있고 훌륭하다  
얌전하다 : ① (사람의 성품 말 몸 가짐 행동이) 안온하고 참작하며 단정하다  
              ② (만듬새나 갖춤새가) 바르고 모양이 좋다  
              ③ 일 솜씨가 맵시있다  
              ④ 생활이 소박하고 점잖다  
              ⑤ 거칠거나 사납지 않고 잔잔하다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전상의 뜻이기 때문에 개념의 性格分類가 명확하지 못하다. 필자는 사전상의 뜻을 참고로 하고, 필자 나름대로의 社會學的 想像力を 加味하여 다음과 같이 ‘점잖다’

〈표 2〉 '점잖다' 와 '얌전하다' 의 社會行爲의 意味

---

## I. 언어행위에 관한 것

- ① 존대말을 적절히 잘 사용한다
- ② 저속한 말이나 상스러운 욕을 삼간다
- ③ 말을 너무 빨리 한다든지 큰 소리를 함부로 지르지 않는다

## II. 복장과 제스처에 관한 것

- ① 상황에 맞추어 의복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는다
- ② 이상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

## III. 對人行動에 관한 것

- ① 인사를 잘한다
- ② 어른과 부모를 잘 대접한다
- ③ 서두르지 않고 항상 침착하게 행동한다
- ④ 항상 겸손하게 행동한다
- ⑤ 言行이 일치한다
- ⑥ 감정을 잘 통제하면서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다

## IV. 인간으로서의 자세에 관한 것(行爲指向)

- ① 模範의인 사람이 되려고 한다
  - ② 禮儀凡節을 중요시한다
  - ③ 結果(成就)와 함께 手段·方法도 중요시한다
  - ④ 學識과 德望을 고루 갖추려고 노력한다
- 

와 '얌전하다'의 뜻을 정리하여 보았다. 뜻 중에서 숨씨라든가 모양에 관한 것은 제외하고, 人間의 行爲에 관한 것을 다음과 같이 네 개의 次元으로 분류하여 範疇化한 것이다. 필자는 '얌전하다'를 여성들의 행위모형으로, '점잖다'를 남성들의 행위모형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두 개념의 뜻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분류는 엄격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同語反復의인 항목도 있고, 서로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항목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가 의도한 점은 '점잖다'라는 일상 용어의 개념을 여러 측면에서 조금 자세하게 나열해 보는 것이었다. '점잖다'와 '얌전하다'의 意味空間을 필자 나름대로 위와 같이 네 차원으로 분류하였지만, 이것을 모두 포괄하여 한 마디로 한다면 行動規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역사학자 李光麟은 한국의 선비와 선비文化를 규정하면서, 선비들의 行動 규범과 精神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이광린, 1982: 11-13, 153-78). 이광린이 말하는 선비정신은 필자가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세에

관한것' (행위지향)과 유사하고, 행동규범은 필자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18세기 朝鮮시대의 대표적인 학자 朴趾源이 쓴 『兩班傳』에 나오는 양반에 관한 에피소드는 양반이 하여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喜劇的으로 표현한 행동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李光麟은 선비정신을 선비들의 행동규범을 지키게 하는 정신적 기초로 보고, 이것을 禮와 義라고 요약하였다(이광린, 1982). 이러한 점에서 李光麟도 선비(문화)의 특징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행동규범이라는 개념으로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言論人 李圭泰는 선비의 본질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를 정리하여 26종류의 性向으로 정리한 바 있다(李圭泰, 1984). 예를 들면, 尊頭性向 · 非打算性向 · 抵抗性向 · 清貧性向 · 保守性向 · 忠義性向 · 謙遜性向 등이 그것인데, 李圭泰의 선비性向의 範疇化도 결국은 행동규범의 성격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國文學者 李熙昇은 선비(샌님)의 剛直하고 義氣롭고 清廉한 生活信條를 '딸깍딸깍 소리나는 나막신을 신고 다니는 샌님'라는 표현을 쓰면서 소개한 유명한 수필을 쓴 바 있다(李熙昇, 1982: 51-55). 여기서도 선비라는 인간됨의 본질을 生活信條라는 말을 쓰면서 소개하는데, 이것 역시 행동규범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행동규범이라는 개념을 잠깐 살펴보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어떻게 하여야만 가장 적절한 것인지를 指示(案内)해 주는 행동의 基準 혹은 原則이 곧 행동규범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동이란 언어 · 제스처 · 의식주 · 예술활동 등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의 기준 혹은 원칙은 물론 價值觀에 근거하고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確固한 判斷에 근거하여 그러한 원칙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비들의 행동규범이 왜 그러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비들의 가치관을 이해하여야 하고, 동시에 행동규범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규범과 가치는 항상 相互包括的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비의 행동규범을 예로 들 때도 선비의 行動規範과 그들의 價值觀은 表裏關係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에서 예를 든 精神 · 性向 · 生活信條 등을 모두 포괄하여 行動規範이라고 말해도 無難하지 않나 생각된다.

#### IV.

이제는 '점잖다'와 '얌전하다'라는 행동규범을 필자가 제시한 네 가지 차원

에 따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인간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他人에 대한 評價와 他人에 의한 評價는 모두 對人關係를 媒介로 하여 이루어진다. 개인 속에 內在하는 知識·理念·價值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言語와 行動을 통하여 타인에게 傳達되고, 타인의 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법으로 나에게 전달된다. 이 때 전달 수단이 되는 언어와 행동은 인간의 지식·이념·가치를 評價切下하여 전달할 수도 있고 過大評價하여 전달할 수도 있으며 歪曲하여 전달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이 동원하는 언어와 행동은 그 사람의 '인간됨'을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와 행동은 한 인간의 '인간됨'을 보여주는 얼굴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와 행동은 일찍부터 관심과 교육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것이 곧 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인간행동의 중요성이라고 하겠고, 이것을 필자는 행동규범이라는 개념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한국인들이 자녀 교육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도 자녀들의 언어 사용과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물론 知識 習得과 價值觀 習得이 여기에 부수되지만, 자녀들이 어른이나 부모에게 하는 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진다. 자녀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부모들이 욕을 듣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른과 부모에게 정확한 존대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이다. 이러한 존대말은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그리고 집안과 친척들 간에서는 어른들에게 試驗 使用되어, 잘못된 것은 矯正되고, 잘된 것은 稱讚을 듣는다. 그 아이와 부모들에 대한 평가도 적절한 언어 사용에 의하여 내려진다. 즉, 언어는 상대방과 본인의 地位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학습하는 것이 사회화의 가장 큰 課題이다.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父母의 期待(expectation)와 남들이 憧憬하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본인의 热望(aspiration)은 사회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언어행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 언어학습은 이와 같이 가장 기초적인 生活學習에 속하였다. 언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엘리트로서 受容되기 어려웠다. 특히 既成世代로부터의 拒否를 克服할 수 없었고, 이렇게 되면 엘리트 세계로의 進入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존대말의 적절한 사용 능력은 한국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적절한 언어 사용, 특히 존대말 사용 능력은 한국인의 사회화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들은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 最大的 존대말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모 연배의 어른들에게도 항상 존대발을 사용하여야 한다.

복장과 제스처도 위에서 언급한 언어행위와 마찬가지로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學習事項이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이상한 제스처(손놀림, 발놀림, 표정짓기)를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한다. 어른들에게 세배를 할 때나 제사를 지낼 때 그 복장과 행동을 端正히 하고 格式에 맞추어야 한다. 인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이다. 식사를 할 때나 술을 마실 때도 일정한 격식이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기준과 격식을 지킴으로써 模範的이고 成熟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일반행동에 관해서도 일정한 규범이 존재하였다. 우선 인사를 적절하게 잘하여야 하고, 특히 어른들과 부모들을 잘 존대하여야 하였다. 모든 일을 침착하게 하여야 하고, 상대방을 위압하려고 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처신할 것을 강조하였다. 허튼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과 행동을一致시켜야 하며, 感情의 支配를 抑制할 수 있는 冷徹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인의 행동규범이었다. 인사를 잘하지 않거나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벼슬과 學識을 가졌어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었다. 말이 많고 感情의으로 행동하는 경박한 사람도 존경을 받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행동규범이 모두 ‘점잖다’라는 말의 뒤에 숨은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동규범을 지탱해 주는 行爲指向 혹은 價值觀으로서는 남들이 존경하는 모범적인 인간으로서 사회가 귀중하게 여기는 價值를 守護하고 遵守하여야 한다는 열망과 결의를 존중하였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각자가 다 같이 엄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規律로서 기본적인 禮節을 중요시하였다. 이는 인간으로서 기초적인 必須條件으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行爲指向은 아무리 目標와 結果가 중요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는 手段과 方法이 正當하여야 한다는 것과도 一脈相通한다. 동시에, 이러한 行爲指向은 인간은 學識도 갖추어야 하지만, 禮節을 기초로 한 德望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학식과 덕망을 균형있게 갖춘다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學識과 德望은 기본예절의 준수를 必須의으로 前提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점잖다’라는 單語에 포함된 뜻과, 이것이 행동규범으로서 한국인의 행위학습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행동규범으로서의 행위모형의 의미를 社會生活 전반에 擴大시켜 一般化하여 보고, 그 歷史的 脈絡을 살펴보고자 한다.

## V.

한국인에 있어서 '점잖다'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행위모형은 사회생활에서 '基本的인 禮節'을 중요시하는 生活의 道를 말한다. 부모와 어른에 대하여, 선생님과 동료에 대하여,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 대하여, 人事할 때, 食事할 때, 對話할 때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복장과 제스처 등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하자면 한국사회에 있어서 가장 標準의 行動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는 學習道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즉, 한국인은 사회생활의 기초로서 禮節을 중요시하는 生活의 道를 학습하는 道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기본 禮節을 존중하는 生活의 道로서 '점잖다'라는 行爲基準이 설정되었고, 여기에 따라 社會化의 目標가 결정된 것이다. 禮節이란 사회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언어·복장·행동, 그리고 행위지향에서 최소한 꼭 지켜져야 하는 共同體規範이다.

모두가 이러한 禮節을 귀중하게 여기고, 예절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意志가 강하고, 그리고 예절이 절대로 어겨서는 안되는 것으로 聖域化될 때, 예절은 하나의 道가 된다. 그리하여 宗敎에 道가 있어 기본 행위의 규범을 지키게 하고 이것을 기초로 깨달음의 세계에 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이라면 '점잖다'라는 基本禮節을 중요시하는 生活의 道를 배우고 지킴으로써 模範의 인 한국인이 되어 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生活의 道를 實踐하는 사람들을 '점잖은 사람'으로 칭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점잖지 못한 사람'으로 斷罪하여 왔다. 이러한 生活의 道를 학습하는 곳이 生活의 道場이다. 생활의 도장으로는 가정·이웃, 그리고 학교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基本禮節을 학습하는 生活의 道場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儒敎의 身分制 社會의 발전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兩班과 常民 그리고 賤民의 身分區分이 뚜렷하였고, 兩班社會의 行爲규범이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社會의 模型으로 수용되어 있었다. 兩班들은 非兩班들과의 差別을 위하여 그들의 行爲양식을 固守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兩班身分의 特權과 權威를 維持할 수 있었다. 兩班身分이 발전시킨 固有文化로서의 行爲양식의 기초는 儒敎의 文化傳統이었다. 三綱五倫을 위시하여 각종 유교적儀式과 格式을 生活화시켜 온 한국 兩班社會의 이러한 儒敎의 行爲규범은 앞에서 잠시 지적한 바 있는 兩班들의 行爲規範과 '선비'思想에서 그 極致를 나타낸다. 필자는 兩班社會에서 발전된 이러한 유교적 行爲규범이 엄격한 身分

的 位階秩序를 기초로 확립·존속되었다고 생각한다. 만일 한국에서 兩班社會가 없었다면, ‘점잖다’로 通稱되는 行爲모형으로서의 행동규범의 純粹한 原形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사회에서 兩班身分에 속한 사람들은 전체 국민 중 極少數에 불과하였지만, 이들은 절대적 支配身分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行爲모형은 그 影響力과 呼訴力이 대단히 컸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生活의 道場은 物理的으로는 家庭·이웃·학교였지만 그 道場의 精神과 思想의 背景은 人間의 對人關係를 극히 중요시하는 儒教的傳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儒教的 傳統이 강력히 존속할 수 있었던 社會的基礎는 身分制였고, 儒教的 傳統을 기초로 하여 발전된 兩班社會의 行爲規範은 그 精神的 根據를 유교적 價值觀에 두었다. 사람들 사이의 禮節을 가장 중요시하는 儒教的 價值觀은 자연히 여러 가지 社會的 儀式과 格式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 의식과 격식이 맞지 않을 때에는 그 本質도 否定하였다. 그리하여 修身齊家를 잘못하고서는 治國에 나설 수 없으며, 治國하는 사람은 반드시 修身齊家를 먼저 충실히 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생활의 격식과 기본예절의 학습을 강조하였다. 말하자면,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점잖은 行爲규범의 학습’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道德的 規律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도덕적 규율을 위반한 인간은 그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이 여지없이 斷罪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과거의 한국 사람들은 身分과 地位에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일차적인 엄격한 禮節教育을 받아 왔다. 가정에서 아이들은 밥 먹으면서 부모로부터 매일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다. 마을에서는 동네 어른들이 항상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타이르면서 교육하였다. 이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干涉과 訓育으로, 다시 말하면 어른들의 社會的 義務로서 받아들여졌다. 동네 어른들을 자기 부모와 같이 섬기는 것이 예절이었다. 그리고 書堂이나 학교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기본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때의 교육은 글 공부도 중요하였지만, 기본예절의 학습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었다. 이처럼 학문은 기본예절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의 도시생활에 있어서는 ‘부모와 家族成員 이외는 모두 낯선 사람들이다. 住居移動이 심하여 이웃은 모두 匿名의 사람들이다. 익명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최소한의 기능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대도시 생활에 있어서는 이웃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웃과의 왕래가 없을 뿐 아니라, 이웃 사람과 간단한 인사도 나누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른들이라 하더라도 이웃 어린이에 대하여 간섭을

하지 않으려 한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行動矯正은 매우 制限的이다. 선생님의 사회적 威信과 사회적 權威가 그만큼 無力化된 것이다. 선생님도 학교생활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한 학생들의 생활습관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으려 한다. 個性의 伸張과 私生活의 保障, 그리고 人權의 保障이라는 現代의 自由主義 教育思想의 영향 탓인지, 師弟間의 관계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타인에 대한 간섭을 삼가고 있다. 말하자면, 현대에 오면서 가족 이외의 타인에 의한 人格的 行爲干涉의 機會는 극도로 縮小·消滅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商業主義의 大衆媒體에 의한 非人格的 영향과 同僚集團에 의한 영향 등 多樣한 影響力이 強化되고 있는 趨勢이다.

이러한 行爲干涉機會의 縮小·消滅은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職場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직장의 上司는 全人格的인 관계가 아니라 業務上의 공식적 관계에 국한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部下職員에 대한 행위 간섭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部下의 특정 행위가 직장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개입하기도 하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학교, 그리고 직장사회에 있어서 행동 간섭을 할 수 있는 '어른들'의 영향력이 기능할 수 없고, 無力化됨에 따라, 기본예절을 배울 수 있는 生活의 道場은 축소되었다. 그 대신 가족들에 의한 기본 예절학습의 중요성은 그만큼 더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대 도시사회에 있어서의 가족생활은 어떠한가? 夫婦 및 직계자녀들로 구성되는 核家族主義와 子女獨立主義의 영향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사회적·심리적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부모 세대가 생활의 道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도로 약해지고 있다. 자녀들이 부모 그리고 어른들과 자주 대면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기본예절 생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로지 學業이라는 결과만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예절과 도덕 생활의 道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또 권위적인 것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보다 많은 시간과 관심을 자녀들을 위해 가져야 하지만, 오늘의 사회현실은 이러한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본예절을 가장 중요한 生活信條로 삼고 생활해 온 既成世代의 영향력은 構造的으로 無力化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VII.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점잖다'라는 대인관계의 기본예절을 어떻게 변질시키고 있는 것일까? 우선 簡素化를 들 수

있다. 특히 언어생활에서는 ‘……하셨습니까?’가 ‘……하셨어요?’ 혹은 ‘……했어요?’로, 그리고 인사할 때 머리를 많이 숙이지 않고 가볍게 숙이는 것이 라든지, 제사도 여러 가지 객식을 간소화하여 지낸다든지, 의복도 상황에 따라 현대화·간소화되고 있으며, 부모를 모시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儀式과 節次가 간소화되었다. 예를 들면 長男이 반드시 부모를 모시지 않을 수도 있다든지, 부모에게 매일 問安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든지, …… 하는 것들이 간소화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규범으로서의 기본예절이 간소화되고 있는 것은 急速한 變化를 屬性으로 하는 현대사회와 현대인의 생활양식이 중요시하는 實用主義·便宜主義와 관계가 있다. 格式과 儀式을 중요시하는 전통적 기본예절이 실용주의와 편의주의에 의하여 單純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사를 짧고 간단하게 하고, 옷도 편리하게 입으려 하며, 각종 의식도 간소화하고자 한다. 부모를 모시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 서로 도움이 되고 또 서로 편리한 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한국의 예절은 相對主義에 입각하고 있다. 부모와 어른들과 같은 上位者에게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은 年下者와 身分·地位의 下位者에 대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신분의 高下에 따라 기본 예절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相對主義는 格式과 儀式에 관한 것일 뿐이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基本姿勢에 있어서는 普遍主義를 견지하였다. “사람이란 점잖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身分과 地位에 따른 차이가 없다. 말하자면 下位者라 해서 점잖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地位의 高下를 不問하고 인간이라면 부모를 잘 모시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하여야 한다는 것은 例外없이 平等하게 적용된 普遍主義의 행동규범이다. 그러나 身分과 地位에 따라 ‘점잖다’라는 기준에서 약간씩 차이가 날 수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의 기본예절로서 ‘점잖다’라는 행동규범이 單純화와 簡素化的 과정을 밟고 있는 것과 함께 質的 轉換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점잖다’의 의미가 顛倒되고 있거나, 혹은 無用之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자아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기본예절인 행동규범은 다분히 序列과 權威에 기초하고 있는 相對主義 혹은 特殊主義이기 때문에 平等主義와 個人主義와는 배치된다는 생각이 문제이다. 民主主義에 있어서는 이러한 思想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해도, 對人關係에 있어서의 기본예절의 變質은 심각한 사회적인 問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이란 점잖아야 한다’라는 전통적 행동규범과 價值觀의 변질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타나는 社會的 課題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사회는 급속한 근대화과정에서 사회 각계에서 機能的 人間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였다. 知識人·專門家·技術者·醫師·辯護士·政治人·商人·藝術家·勤勞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급히 필요로 하는 人材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대량으로 充員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專門知識과 能力만을 중요시하였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예절과 기본가치관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간의 機能的側面의 強調와 本質的·價值의 측면의 等閑視는 사회 각 분야의 充員過程에서 나타났고, 이러한 人間評價는 한국의 각급 學校教育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이것은 다시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連鎖의 으로 반영되었다. 그리하여 가정의 자녀교육은 지식과 기술을 예절보다 중요시하고, 학교 교육 역시 지식과 기술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變質되었다. 현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機能的 專門能力이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기본예절의 존중과는 일치되지 않는 것이다. 機能的 專門人の 급격한 需要 증대와 이들 人材의 拙速한 養成과 供給은 形式적 근대화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현대사회의 實質적 形成·發展(삶의 質 向上)에는 많은 한계를 내포할 수 밖에 없었다.

오늘날에는 基本禮節과 倫理가 잘못된 專門人과 市民들이 사회 각계에 포진하여 이들로 인하여 과생되는 政治·社會·文化·產業·經濟의 문제는 한층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발전에 障碍가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人間의 問題라고 믿기 때문이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技術落後·資本貧弱·政策不在·暴力 등의 根底에도 모두 人間 問題가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사회 생활의 기본인 예절교육을 통하여 관찰하고자 하였던 人間觀과 社會秩序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예절은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며, 이를 토대로 공동체의 共同善을 원만하게 달성하게 해주는 하나의 社會的 契約이었다.

학교 성적은 매우 우수하지만 선생님에게 인사도 잘할 줄 모르는 학생들, 사회적으로 출세하여 높은 자리에 있지만 친구들과 사회로부터 '점잖지 못한' 사람으로 烙印찍히고 가족으로부터도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專門職業人이 되어 사회적 존경을 받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기본예절을 갖추지 못하여 부하들과 사회로부터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醫術은 홀륭하여 유명하지만 환자들을 대하는 예절과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醫師들,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면서 政界指導者로 발탁되어 嘲弄을 받는 사람들, ……, 이와 같이 인간의 기능적 측면만을 중요시한 나머지 기본예절을 중요시하는 인간됨이 균형있게 갖추지 못한 사례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목도하고 있다. 修

身도 제대로 안된 사람들이 社會指導者로 出世한다는 것은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例들은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가 추구하는 模範的인 行爲模型은 될 수 없지만, 이러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국인의 行爲學習을 위한 基準에 큰 혼란을 더해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점잖다’의 기본 조건을 갖추기보다는 專門知識과 能力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 그리고 他人에 의한 ‘점잖다’라는 評價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擴散됨으로써 사회적인 夏慮를 자아내고 있다. 目的을 위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겠다는 생각도 바로 이와 같은 ‘점잖다’의 無用論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社會的 過程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예절 자체에 대한 無視現象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점잖다’라는 行爲規範에 대한 無用論이라 할 것이고, 이것은 過去傳統과의 엄청난 斷折을 의미하였으며, 동시에 한국인의 行爲모형에 大混亂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 無用論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전통적 의미의 ‘점잖다’에서 벗어난 사람일수록 사회적 성공을 거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면 ‘점잖다’의 규범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현대사회의 생활양식에 符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을까? 필자는 특히 부모에 관한 예절, 어른들에 대한 예절, 타인들에 대한 예절에서 無用論의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부모를 섬기는 일(孝道)이 과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정중하게 問安을 드리는 일, 하루 세 번의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드리는 일, 부모에게 가정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일, 부모가 원하는 일을 미리 알고 처리함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 돌아가신 先祖와 살아 있는 弟兄姊妹 그리고 親戚들을 잘 돌보는 일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하는 尊待語는 최상의 것이며 까다롭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현대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더러는 거의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다. 현대인은 이러한 것들 중에서 많은 것을 簡素化·省略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거창한 일들을 현대인은 할 수 없으니 자연히 無用論이 대두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孝道라는 것을 形式과 格式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다. 위와 같은 일들을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부모를 恭敬하고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合理化하고 대부분의 格式을 아예 無視하려고 한다. 말하자면, 실제로 그런 일들을 못해도 좋으니 마음으로만 부모을 모시면 된다는 것이다. 매우 편리한 現代人の 自己辨明이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현대인은 減少해가고 친척과의 만남은 더욱 疏遠해지고 있다. 현대의 도시인들은 친척과의 만남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會食을 갖거나, 家族新聞을 만드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들과의 만

남은 일년에 한번 정도 陰曆 正月 초하루나 秋夕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예절의 기본은 부모를 恭敬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앞에서 항상 겸손하여야 하듯이, 他人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모와 어른들을 가까이할 수 없으니 부모나 어른 섬기는 것을 모르게 된다. 이것은 기본예절의 학습기회가 상실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대 도시사회는 生活圈이 극히 廣大하여 자기를 아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匿名社會의 성격이 강하다. 자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간섭하고, 訓示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이다. 자녀들이 어린 경우에도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모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옛날에는 마을에서 認定을 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발을 붙이기 어려웠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 말하자면, 人間評價의 基準이 과거에는 同一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자기를 가까이에서 잘 아는 사람은 少數일 뿐이다. 자기를 모르는 불특정 多數에게 大衆媒體를 통하여 얼마든지 有名해질 수 있다. 人間評價의 기준이 多樣化·非同一化되면서 사람들 사이의 緊張과 不信이 나타난 것이다.

## VII.

이상과 같은 일련의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農耕社會에서 발전하였던 기본예절의 여러 가지 격식들 중 현대사회에는 不適合한 것이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 기본예절에는 복잡하고 거창스러운 요소가 확실이 존재한다. 이 점을 일반화해서 말하면, 儀式的이고 形式的인 것을 가능한 한 축소·간소화하고 實用化하는 趨勢를 말한다고 하겠다. 부모에게 간혹 전화로만 문안드린다든가, 인사도 간단하게 악수로 혹은 약간 머리만을 숙인다든지 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고, 上司나 恩師들에게는 부모와는 달리 최소한의 간단한 인사로도 괜찮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으며, 歲拜나 祭祀가 간소화되고, 복장도 함께 현대화·간소화되고 있다. 전체 사회의 생활리듬과 생활양식이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맞추어 변화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전통적 기본예절의 간소화와 실용화가 초래한豫期치 못한 社會的 結果(unintended consequence)이다.

이미 간단히 지적하였지만,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예절이 현대사회의 구조적 전환에 맞추어 簡素化·實用化되면서 일부의 無用論까지 대두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본예절의 배경에 있는 基本精神의 變質을

아주 많이 경험하였다. 전통적 기본예절은 그 儀式的·形式的 節次가 어떠하든 인간생활의 기본 행동규범을 제시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品位를 지키려고 한 것이었다. 따라서, 비록 그 儀式的 節次가 簡素化·實用化되더라도 共同生活에 필요한 인간으로서의 品位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생활에 있어서 非效率的이며 非生產的인 것은 물론 改善되어야 한다.

인사를 간단하게라도 서로 교환할 줄은 알아야 한다. 부모들에게 간혹 문안 드리는 것은 하여야 한다. 어른들에게는 적절한 존대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부모와 어른들을 尊待하라는 옛날의 가르침은 他人들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 준다. 인간이 겸손할 줄 모르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다. 他人에 대하여 겸손하다는 것은 他人을 尊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현대 民主主義 社會에서도 基本人權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본예절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기본 德目도 부모와 어른을 잘 모신다는 과거의 전통이 延長되면서 가능한 것이다. 물론 盲目的인 延長은 아니다. 간소화·실용화 과정에서도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겸손하여야 한다”라는 기본정신은 살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람이란 점잖아요 한다’라는 행위규범의 기본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할 줄 알고, 남의 얘기를 경청할 줄 알며, 남의意思를 尊重하고, 言行이 一致하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복장을 단정히 하는 사람, 존대말을 적절히 잘 쓰는 사람, 부모와 어른들을 잘 모시는 사람, ……, 이러한 기본예절은 현대사회에서도 계속 요구되고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현대인을 魅了시키고 있는 西歐社會의 個人主義·人道主義·平等主義, 그리고 人權主義 등의 原則과도 거의 一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가 발전시킨 ‘사람이란 점잖아요 한다’라는 기본예절의 一般法則은 그 뿌리를 계승하여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그대로 尊重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東洋이나 西洋이나 人間生活의 基本禮節은 비슷하지 않나 생각된다. 다만 사회에 따라 文化的 存在樣式이 약간씩 달라 尊重하는 言語와 行動方式이 약간씩 差異가 날 것이다.

다만 현대사회는 연령이나 신분의 차이와 같은 歸屬的 地位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을 前近代의 屬性으로 간주된다. 한국의 傳統的 예절은 바로 이러한 前近代的 社會關係를 기초로 발전한 것으로 斷定하고 無視한다. 그 대신에 개인의 能力과 成就的 地位를 지나치게 존중함으로써 인간의 本質的 측면을 無視하는 위험성을 內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대로 비록 身分社會의 儒教의 傳統에 뿌리를 둔 한국의 전통예절

의 發顯으로서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라는 행위규범의 기본정신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대단히 중요한 生活原則이 되고 있고 또 되어야 한다는 점을 認識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잖다’의 基本意味를 現代的으로 吟味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점잖다’라는 원래의 뜻 중에서 현대사회의 생활구조에 맞지 않는 것들은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그 基本精神과 原則은 현대사회에서도 그대로 살아 있는 한국인의 生活規範이라고 생각된다.

‘얌전하다’는 원칙적으로 女性들에게 적용되었다고 믿어진다. 특히 未婚女性과 젊은 既婚女性들에게 해당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들에게는 해당 男性들보다 훨씬 엄격한 ‘점잖다’의 基準이 適用되었을 것이다. 특히 女性이기 때문에 美的 要素도 追加로 期待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절에 철저하면서도 예쁘게, 곱게, 그리고 愛嬌있게 말하고 인사하고 웃입고 하는 것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女性도 나이가 들어 성숙한 연령에 도달하면 男女 區別없이 모두 ‘점잖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이렇게 볼때 ‘얌전하다’라는 표현은 女子 어린이와 젊은 女性들을 위해 특별히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詞典的 의미를 이미 소개하였듯이, 우리 말에서 ‘점잖다’는 느릿느릿 하면서 莊嚴한 男性的 語感(nuance)을 가지고, ‘얌전하다’는 곱고 예쁘장한 女性的 語感을 가진다.

‘점잖다’와 ‘얌전하다’가 다 같이 인간의 기본예절을 말해주는 行動規범이라 하더라도 表現言語가 다르다는 것은 社會生活에 있어서 男女間에 분명히 그 役割과 活動方式, 그리고 活動領域에서 差異와 區別이 있음을 말해준다. 젊은 女性으로서 일반 禮節은 他人的 模範이 된다 하더라도 女性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될 일을 하면 그녀는 ‘얌전하지 못한 여자’로 烙印찍혔던 것이 과거의 일이다. 현대에 와서는 活動領域에 관한 한 男女의 區別이 없어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젊은 未婚女性들의 지나친 男女差別을 無視하는 果敢한 言語와 行動에 대하여는 既成世代로부터 ‘얌전하지 못하다’는 評價를 받게 되는 것이 現實이라고 생각된다. 어떻든 ‘얌전하다’라는 基準이 性差別이 심하였던 시대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基本精神은 사회생활의 基本禮節을 준수하도록 하는 行動規範으로서 ‘점잖다’와 똑같은 意味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점잖다’의 現代的 解釋과 같이 ‘얌전하다’도 과거와 같은 性役割의 엄격한 差別의 意味를 現代的으로 克服하고 그 基本精神을 계승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가 지나치게 保守的으로 또 主觀的이며 希望的인 解釋을 한다고 생각하지 모르나,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점잖다’와 ‘얌전하다’가 가장 흔히 쓰이는 子女教育의 指針임을 염두에 둘 때, 그 意味와 適用이 簡素化와 實用化의

過程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정신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필자의診斷을 確認해주고 있다고 믿고 싶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행동규범으로서의 ‘점잖다’와 ‘얌전하다’의 기본정신이 과거보다는 훨씬 弱化되고 있다는 것을 否定하지는 못한다. 簡素化와 實用化의 過程에서 행동규범의 基準이顛倒되거나 變質되어 反社會的·逸脫의 行爲者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아직은 아버지와 담배를 함께 피우는 아들과 딸을 볼 수 없듯이, 기본예절의 守護精神은 아직도 강하게 존속되고 있다고 믿는다.

### 참고문헌

金一鐵

1986 “행위양식과 사회통제.” 『社會構造와 社會行爲論』. 서울: 전예원. pp. 105-32.

朴趾源

1982 “兩班傳.” 國際文化財團 編, 『韓國의 선비文化』. 서울: 時事英語社.  
尹泰林

1970 『意識構造上으로 본 韓國人』. 서울: 玄岩社.

李光麟

1982 “序文.” 國際文化財團 編, 『韓國의 선비文化』. 서울: 時事英語社.  
李光麟·李佑成·崔永浩

1982 “鼎談: 韓國의 선비文化.” 國際文化財團 編, 『韓國의 선비文化』. 서울: 時事英語社.

李圭泰

1984 『선비의 意識構造』. 서울: 신원문화사.

李章熙

1982 『朝鮮時代 선비研究』. 서울: 博英社.

李熙昇

1982 『딸깍발이 散文』. 서울: 文公社.

鄭 從

1975 『孔子思想의 人間學의 研究』. 서울: 東國大學校 出版部.